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6월

선교편지 제 10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아침은 본의 아니게 매우 일찍 시작합니다. 마치 강아지를 키우듯이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 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동네 곳곳에서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하면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쾌한 아침이 아니라, 새벽 닭 울음 소리로 인하여 시작부터 피곤한 하루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성가신 닭 울음 소리가 새벽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여전히 많은 닭들이 돌아 다니고, 닭 울음 소리도 요란하지만, 어느새 새벽닭 소리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 잠을 깨우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다름이 아닌, 옆집으로 새로 이사를 온 이웃의 '노래' 소리입니다. 얼마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노래가 계속됩니다. 그로 인해서 새벽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깰 때가 많아 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잠기지 않고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새벽잠을 설친 '짜증'이 '감탄'으로 바뀌어서 일어 나곤 합니다. 평상 시에도 동네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노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 오는데, 마치 라디오를 크게 켜 놓고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며, 또한 얼마나 잘 부르는지,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고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절제된 발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원하게 목청을 다하여 내뿜는 거침 없는 노래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보를 통하여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익혀서 부르는 까닭에 같은 노래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새로운 노래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 눈에는 이곳 모든 사람들이 '가수'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주로 현지 목회자들을 통하여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찬양 담당자들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앞에 세우기만 하면 힘차게 찬양 인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찬양 만큼은 남녀노소가 없이 모두 일어나서 손뼉을 치는 것은 물론, 온 몸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찬양 만큼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만한 찬양에 대한 귀한 성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부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있는 5월을 맞이해서, '제1회 가족 찬양 경연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독창이 아닌 가족 단위로 합창을 하게 하고,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그룹을 만들어서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경연 대회 한달 전부터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는 가운데, 참가 등록을 받고 현지 교역자들을 통하여 그룹별로 예비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찬양 경연 대회 이다보니, 곡목을 선정하는 것부터 사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흥겨운 이곳 전통 노래도 있었고, 학생들의 의욕이 앞선 울동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세 팀이 선정이 되어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온 교우들이 참여한 가족 찬양 경연 대회 본선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믿음상'과 '소망상'은 공동 2위이고, '사랑상'이 1등으로 상품은 2등에 비해 두 배가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세 팀의 찬양을 들은 후에 모든 교우들에게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고 가장 잘한 팀을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인 모두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흥미 진진한 찬양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사리타' 형제 가정, '라모스' 집사님 가정 그리고 대학생 팀이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긴장과 진지함으로 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로사리타' 형제팀은 두 가정이 언제 모여서 연습을 했는지, 화목함이 듯 보이는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대학생팀은 익숙한 찬송가를 화음을 넣어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찬양을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라모스' 집사님 가정은 다른 팀과는 달리 '반주'도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모스' 집사님 가정이 부른 찬양은 금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 하면서, 노래로 성경을 암송할수 있도록 가르쳐준 '시편 23

편' 이었습니다. 지난 성경공부 이후에 '라모스' 집사님으로부터 '시편 23편'의 노래를 암송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와 여동생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라모스' 집사님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라모스' 집사님 팀에 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했습니다.

찬양대회를 마친후 투표 결과, 오랜동안 준비해서 완성도가 높은 '대학생' 팀이 '사랑상'을 받았고, '믿음상'과 '소망상'은 각각 '라모스' 집사님 가정과 '로사리타' 형제 가정이 받았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찬양 경연 대회' 이지만,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씩 하자는 제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지만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서, '라모스' 집사님께 다가가서 집사님을 오랫동안 안아 주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작년 11월부터 익핏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기기 시작한 '익핏 예일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거의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일 오후에 어린이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익핏 예일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체 예배당은 없지만, 그들이 있는 학교 교정에서 한편에서는 어린이 예배, 또 한편에서는 어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들만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고스 예일 교회 교인들이 팀을 이루어 어린이 사역과 마을 주민 사역을 아주 능동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 담당, 성경공부 담당, 게임 담당, 미술 담당이 있고, 익핏 지역 주민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디고스 예일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 마저도 교회 출석이 매우 불규칙 했었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숫자는 매주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수만큼의 기존 어린이와 어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체 예배당이 없다보니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일 예배 전에 '익핏 예일 교회'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예배 후에는 현수막을 내림과 함께 훌쩍 사라지는 교회이다보니, 익핏의 어린이나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지인 교역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디고스 예일 교회 교인들 모두가 익핏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핏 마을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좀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익핏 마을 주민들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핏 예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현지 교역자의 인도로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 주민들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하고, 기도 제목도 내어 놓고 서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심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심방을 통하여 교회에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남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3~4 가정씩 심방을 가고 있는데,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선물도 준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핏 지역을 수 없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 심방을 통해서 이곳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새롭게 알게되어, 기도가 더욱 더 간절해 집니다.

비록 예배당이 없는 '익핏 예일 교회'이지만, 마치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더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 38.39)**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